

# 사라져 가는 것, 그 슬픔과 아련함 역사도, 운명도 '빛'이 되어 흐른다

G.MAP 이이남 특별전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리뷰

"우리는 꿈을 꾸었어요. 우리 마을은 별처럼 빛났어요. 반짝반짝. 우리 마을은 오늘도 빛났어요."  
흘러가는 시간 속 기억을 붙잡고 그 안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빛'의 전시가 펼쳐진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G.MAP에서 열리는 이이남 미디어아트 특별전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자신의 흘러간 시간을 빌려온다. 총별 곳곳에 작가의 기억을 숨겨 놓아 관람객이 발견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전시 공간을 최대한 확장, G.MAP이라는 건물 자체를 전시 주제와 결합시켰다. 이곳 물리적인 공간을 이이남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가상으로 설정했다.



G.MAP 1층 로비에서 만날 수 있는 '책 읽는 소녀' 동상

## '80년 5월'·'가족'...유년시절 기억 그너머 존재하는 살아있는 아우성 삶과 죽음 바라보는 작가적 시선...빛·그림자·조각으로 입체적 표현

1층 전시장에 들어서면 어두운 로비 한 가운데 소녀상이 관객들을 맞이한다. 초등학교 교정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책 읽는 소녀 동상으로, 마치 관람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소녀상 그림자는 '미디어', '아티스트' 등 꿈틀거리는 글자로 매워져 있다. 빛과 그림자를 통해 표현된 작가의 유전자 정보로 '나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로비 오른쪽에서는 어린 아이 키만한 높이의 문을 마주할 수 있다. '80년 5월 18일 날씨 맑음'이란 주제의 전시장 입구로, 80년 5월 당시 초등학교 5학년생이던 작가의 어린 시절 기억 속으로 함께 떠난다.  
몸을 숙여 문을 통과하면 전시장 바닥을 가득 메운 윤슬이 일렁이는 영산강 물결과 꺼지지 않는 촛불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장에선 김추자의 '꽃잎'이 흘러나온다. 여기에 40여대의 오래된 선풍기들이 마치 헬기 소리와 같은 굉음을 내며 돌아오고 있다. 어딘가 모르게 기묘하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지만, 햇빛을 들고 있는 소녀상은 굳건해 보인다.  
선풍기 날개는 작가의 어린 시절이 담긴 사진이 부착돼 있다.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과 공포스러운 헬기 소리는 곧 모순 가득한 현실 속 각자의 기억이 원하는 방향으로 편집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2층 전시장에선 보다 내면으로 들어가 유년시절 가족과 함께한 추억을 회상하고 있다.  
어머니가 들려준 자장가, 따뜻한 도시락, 아버지의 재킷 속 동전을 훔쳤던 기억 등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들을 펼쳐낸다.  
한편에는 '쓰고 버리는 편지'라는 관객 참여 공간이 마련됐

다. 내가 보낸 시간 중 버리고 싶은 기억을 종이에 써서 후련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활동이다.  
이와는 또다른 분위기로 전시장 중앙에서는 책 읽어주는 소녀상의 낭독회가 펼쳐지고 있다. '사랑', '출 추다', '함께 어울리다' 등 단어들만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는 죽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려는 아이의 기억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작가는 유난히 죽음에 대한 꿈을 많이 꾀던 담양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때의 기억을 특정하고 있다. 당시의 간첩, 공산화, 전쟁과 같은 단어들만 난무했는데, 이러한 상황은 어린 아이의 무의식까지 '죽음'이라는 공포를 새겨 넣었다.  
약 9분간 재생되는 영상에서는 안경의 '몽유도원도'를 배경으로 옛 전남도청 분수대가 나오기도 하고, 곳곳에 바벨탑 이야기나 불의 심판 등 성서와 관련된 모티브들이 등장한다. 광주에서 느낀 기억들과 죽음의 이미지가 어우러지며 혼재한 상황을 나타낸다. 당시 겪었던 내면의 공포를 순수한 어린 아이의 목소리로 담담하게 전달하고 있다.  
3층 전시장은 죽음과 삶은 결국 하나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제로 꾸며졌다. 죽음을 의미하는 피에타상과 동양의 산수를 소재로 한 영상이 조화를 이루고, 마이웨이 음악과 함께 축제와 전쟁의 이미지가 중첩되면서 무대는 클라이막스에 이른다.  
이이남 작가는 "이번 전시는 평면으로만 봤던 빛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입체적 조각과 연결 짓는 전시"라며 "어린 아이의 시선 뒤에 감춰진 5·18을 각자의 시선으로 재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시는 내년 4월30일까지 이어진다. /최명진기자



위로부터 '80년 5월 18일 날씨 맑음' '책 읽어주는 소녀' '뿌리들의 일어섬'

## 상상력 가득한 어린이 음악극 '행복한 왕자'

10-11일 ACC 어린이극장...초등생 연극놀이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10-11일 ACC 어린이극장에서 어린이 음악극 '행복한 왕자'를 선보인다.  
"2022년 ACC어린이극장 공동기획 프로그램"의 마지막 작품인 이번 공연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오스카 와일드의 동화 '행복한 왕자'를 가슴 절절한 사랑 이야기로 풀어낸 음악극이다.  
제19회 서울어린이연극상 우수작품상, 각본상, 음악상, 연기상 등을 수상했다.  
'행복한 왕자'의 배우들은 작은 수레를 끌고 다니는 유랑극단의 광대같다. 이들은 수레에서 꺼내는 작은 소품으로 왕자가 되기도, 제비가 되기도 한다.  
이 음악극은 왕자를 사랑해 그의 곁을 지키는 제비, 사람을 사랑해 흥한 모습으로 허물어져 간 왕자를 통

해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는 공연이다.  
구슬프지만 아름다운 음악 연주, 배우들의 유연한 움직임과 노래는 관객들에게 눈물과 웃음을 선사한다.  
아울러 ACC재단은 음악극 '행복한 왕자'와 연계해 초등생 대상 연극놀이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일상의 놀이를 통해 상상력과 표현력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동기획 단체인 극단 북새통은 2002년 창단 이래 '놀이'가 연극이 되고 연극이 놀이가 되는 세상을 꿈꾸며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연극을 지향하는 단체다.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진정한 문화 찾기를 실천하며, 동시대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아우르



'행복한 왕자' 공연 모습 <ACC재단 제공>  
는 예술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행복한 왕자'는 10-11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총 4회 공연을 진행하며,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관람권은 전석 1만5천원이다. 공연 관람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기자

##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신규 단원 모집

12일부터 15일까지 원서 접수 22일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공고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으로 활동하며 공연수당, 예능활동 지원금 지급, 단복 및 간식 제공, 음악캠프 및 워크숍 비용 지원, 각종 초청공연 체제비 지원, 음악·영어 교육 프로그램 무료 수강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정기 연습 일정은 학기 중에는 매주 화·목(오후 6-9시), 방학 중에는 매주 월·금(오전 10시-오후 1시)이다. 합창단 상황에 따라 연습 일정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  
응시원서 내려받기 및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기자

12일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부터 응시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이며 응시원서와 자유곡 악보 1부를 이메일(5291125@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오는 17일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에서 실기 오디션과 면접을 거쳐

## 광주 대인동의 문화공원 김넛과

카페  
식음료, 카페갤러리, 아트상품 전시 & 판매

아트호텔  
전객실 회화전시 / 장기숙박할인(음식조리가능)  
지하갤러리(55평), 2층(75평) 전시, 상설공연, 도서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음악콘서트(저녁 7시 30분)  
최대 100여명 사용가능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52-2번지  
전화번호 : 062-229-3355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기사모집

### 카메라

전문 수리 기술자 모심

마스타 레벨 이상 자격을 갖추신 분 특별우대  
정규직 급여 상담 후 결정



문의전화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